

## 미만성 간질성 폐렴 형태로 발견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1예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<sup>1</sup>,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<sup>2</sup>

정희윤<sup>1</sup>, 김승이<sup>1</sup>, 김준용<sup>2</sup>

**서론:**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전신계적으로 가장 흔한 비호지킨 림프종이며 완치에서 불응성 및 재발까지 다양한 예후를 가진 질환이다. 대부분은 우연히 림프절이 만져지거나 열, 야간발한, 체중감소 등의 B증상으로 발견된다. 저자들은 호흡곤란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상 미만성 간유리 음영패턴의 간질성폐렴 의증하 스테로이드 치료 후 호전된 환자에서 추후 안과검진을 받다가 안구내 림프종 의심병변이 발견되어 추가 폐 조직검사를 시행한 폐를 침범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.

**증례:** 74세 남자가 내원 1주일전부터 발열, 호흡곤란, 기력저하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. 당시 체온 37.9도로 확인되었고 다른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다. 신체진찰에서 특이사항 없었으며 백혈구 6090/uL(호중구 57.9% 림프구 23.0%), C 반응성 단백(C-reactive protein) 49.3mg/L로 확인되었다.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상 미만성 간유리 음영패턴의 간질성폐렴이 의심되고 경기관지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상 만성염증외에 특이 소견은 없고, 기관지폐포 세척액검사상 특이 소견 없어, 경험적 스테로이드 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(Fig1 A-B). 환자는 이후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추적 CT 검사상에서도 병변 소실되어, 외래에서 점차 스테로이드를 줄여가다 중단하였다(Fig2 A-B). 이후 6개월 뒤 우안의 비문증으로 안과에 내원하여 망막검사상 안구내 림프종 의심병변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 위해 입원하여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다시 재발된 미만성 간유리 음영 패턴의 간질성폐렴 의심 병변이 발견되었고 경기관지폐생검 시행 후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(Fig3 A-B)되어 혈액내과 전과 후 항암치료 후 호전된 상태로 추적중이다.

**고찰:**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서 폐침범으로 발견되는 보고는 현재까지 전체 림프종의 0.4%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드물다. 미만성 간유리 음영을 보이는 간질성 폐렴 양상이 CT 상 관찰되는 환자에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별 진단의 하나로 드물게 림프종의 폐 침범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.

